



## 한전공대, 개교 3년 앞 정부·한전 절차 서둘러야

2021년 건축물 완공해야  
신입생 모집 가능  
전남도, 협력 시스템 구축 나서  
29일 첫 정부지원협의회 주목

한전공대를 유치한 전남도가 2022년 개교 일정에 맞추기 위해 한국전력, 정부와의 함께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22년 개교를 위해서는 1년 전인 2021년 하반기까지 캠퍼스 조성 및 건축물 완공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실시협약, 한전 내 이사회 결의, 전남도의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전 적자로 인해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만큼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학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 정부지원협의회 첫 실무회의에 대비해 지난 26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종갑 한국

전력 사장과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에 요청할 지원 내역, 2022년 개교를 위한 한전과 전남도의 역할 배분 등 한전공대와 관련된 현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교가 3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행 상황이 너무 더디다고 판단한 전남도가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 확보, 한전의 한전공대 마스터플랜 작성, 전남도의 승인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에너지특화대학으로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받치고 뒤편을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전이 2018년 1조 1508억원 적자를 보이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면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전남도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은 전남도와 협력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대내외에 한전공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하면, 2022년 개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공대에 대한 전남

도의 재정 지원은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다"며 "한전공대 로 인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인재가 집적하면서 광주·전남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에서 4월중에 한전공대와 클러스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예정에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도교육청과 협조해 2021년 3월 가정 '혁신IT에너지고등학교'를 영재 중심 특목고 형태로 설립하는 등 한전공대의 설립 효과가 전남 전반에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클러스터에는 국책연구기관, 에너지 관련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일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학생 정원이 1000명인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빛가람동 부영 CC 40만㎡를 1단계, 산학 클러스터가 조성될 산포면 일대 80만㎡가 그 대상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한전공대 및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유입 인구 및 이동 인구 파악, 경제 효과 측정, 도시공간 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나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DMZ 민 + 평화손잡기 DMZ평화인간띠운동 광주전남본부가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DMZ민(民)+평화손잡기 D-31결의대회'를 열고 평화손잡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DMZ글씨 형상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단체장들 재산 신고 23명은 늘었고 8명은 줄었다

이용섭 광주시장 8억6200만원  
김영록 전남지사 16억9300만원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주·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29명 가운데 23명의 재산은 늘었고, 8명은 재산이 줄었다.

이 가운데 명현관 해남군수가 64억 6200만원을, 이동현 전남도의회이 65억 9000만원을 각각 신고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거비용 보전 등으로 각각 4억원, 8억원 가량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4억4000만원이 늘어 8억 6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돌려받은 선거보전비용 등으로 4억9000여만원이 늘었고, 아파트 전세권(3억2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구입(3300만원) 등을 새로

게 신고했다. 채무는 선거보전비용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차량 구입 대출 등으로 3억9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아파트 공시지가 변동(6억1000만원), 예금 증가(4억3000만원) 등으로 1억8000만원이 늘어난 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병훈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은 토지 상속 등으로 3억6000만원이 증가하면서 17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억1900만원이 늘어난 16억9300만원을 신고했다. 장남 소유 예금과 본인 소유 예금이 선거비용 보

전 및 급여 저축으로 크게 늘었고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2억원의 채무도 감소한 것이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39억5600만원의 재산을 신고, 종전보다 5억5300만원이 늘어났다. 서울 압구정동에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이 반영됐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12억2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재산이 늘었다.

장휘구 시교육감은 6만원이 늘어난 6억9000만원을 신고했고, 장석용 전남도 교육감은 -2억4000만원에서 3억4600만원이 증가해 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최현배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쇼핑 1번가 총장로·금남로  
빈 점포 흥물 방치 ▶6면

굿모닝 예향 - 세계 미술관 기행  
덴마크 칼스버그 미술관 ▶18면

KIA 올 시즌 성적  
젊은 피 최원준·김기훈에 달렸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박상기 법무 “김학의 사건,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

국회 출석 ... “신속·공정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검찰총장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특별수사단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

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광산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수사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방식으로 거론된 ‘특인

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답했다. 특인검사 제도는 특인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비위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지원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지원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하나**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둘**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 셋**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2017~2018년 2년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 창업자  
고0찬(충남 태안) 김0혁(인천 강화) 김0희(인천 옹진) 김0현(전북 익산) 박0웅(충남 부여) 배0준(충남 태안) 신0성(전남 무안) 이0형(경남 남해) 정0영(충남 태안) 천0주(전남 신안) 최0종(전남 영암) 최0욱(경남 사천) 추0선(경남 거제) 허0완(전남 신안)

큰징거미새우 양식 창업자  
강0용(경남 산청) 권0도(경북 경산) 김0열(전남 강진) 김0우(경남 부산) 김0민(경북 하동) 김0일(전남 영암) 김0구(전남 화순) 김0주(경북 청송) 박0홍(경남 울산) 박0영(충남 금산) 박0영(경북 청송) 박0이(전남 나주) 심0우(전남 신안) 안0훈(전남 목포) 오0형(강원 홍천) 이0남(전북 고창) 허0치(경북 성주)

### 양식창업에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교육, 창업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참가자 및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5~6월 모집공고, 7~8월 기술이전교육 진행 예정)

